

믿는 이들 속에 자신의 형상을 이루시는 분

9/1 월요일

### 아침의 누림

갈 1:15-16

15 그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분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16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갈 4:5-6

5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 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롬 1:17

17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롬 8:18

18 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고전 2:10

1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벧전 1:5

5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벧전 5:1

1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나는 같은 장로로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유합니다.

요 17:3

3 영원한 생명이 이것입니다. 곧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인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 3:16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다소의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들을 박해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그를 만나셨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나타나심에 사로잡혀  
사도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돌이키고 여러 해가  
지난 후, 바울은 갈라디아서 1 장 15 절과  
16 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그의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선포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그에게  
계시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그의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했다. 이러한 계시는 단지 외적인 이상이  
아니라 내적으로 보는 것이었다. ... 이러한  
내적인 이상이 그를 사도로 만들고 사도가 될  
자격을 갖게 하여, 그가 단지 어떤 종교에 따라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계시되신 그리스도 자신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24, 17-18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1 장 11 절과 12 절은 바울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과,

사람이 그의 복음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과, 그가  
주님 자신에게서 직접 복음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밝혀 준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계시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이것은  
사도 안에 계시되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킨다. 바울은 그러한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복음을 받았다. 계시는 감추어진 어떤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휘장을 걷는 것이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복음이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이다(롬 1:1,  
9). 바울의 복음은 삼일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계시이다(고전 15:45 하, 고후 3:17,  
갈 3:2, 5, 14). 바울의 복음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어 우리가  
단체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롬  
8:11, 12:4-5, 엡 1:22-23). 바울의 복음의  
초점은 하나님 자신께서 그분의 삼일성 안에서  
과정을 거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되시어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어 영원토록 그분을 표현하게 하시는  
것이다(갈 4:4, 6, 3:13-14, 26-28, 6:15).

하나님 아버지의 체현과 표현이신 하나님의  
아들(요 1:18, 14:9-11, 히 1:3)은 우리의  
생명이다(요 10:10, 요일 5:12, 골 3:4).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17:3, 3:16)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요 1:12, 갈 4:5-6) 하시기 위한 것이다.  
... 유대교도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미혹시켜  
율법의 규례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의

서문에서 사도는 자신이 유대교라는 영역에 깊이 관련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매우 앞서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자신 안에 계시하시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던 세상의 체계에서 건져 내셨다고 증언했다. 사도가 체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자신의 조상에게서 받은 유대교나 이 유대교의 죽은 전통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갈라디아서 1 장 16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안에’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고, 외적인 이상을 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보는 것을 통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객관적인 계시가 아니라 주관적인 계시이다.

더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그의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한다. ...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살아 있는 인격을 밝히고 계시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24, 18-2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24

## 9/2 화요일

### 아침의 누림

#### 갈 2:19-20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한 것입니다.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 갈 6:14

14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 요 15:4-5

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 롬 12:4-5

4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 살전 1:1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은 교환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한편으로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 사는”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이 이 절 전체를 살펴본다면, 여기에 교환된 생명의 개념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것은 교환이 아니다. 그것은 심오한 비밀이다.(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0,126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계시한다. 이 기본적인 진리들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2 장 20 절에서 볼 수 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진리는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또한 비밀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이 진리는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역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시도록 주님을 앙망한다.

율법은 죄인인 나에게 죽을 것을 요구하고, 그런 요구에 따라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 지는 의무와 율법과 맺는 관계가 끝났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끝났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부활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든 우리 스스로 만든 율법이든 여전히 어떤 율법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의 유기적인 연결에 의해 율법에서 잘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우리가 얽매어 있던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로마서 7 장 6 절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어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라고 말한다. 율법에 대한 의무에서 풀려났으므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할 수 있다(롬 6:4). 그러나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체험하는 잘림에 달려 있다. 우리가 잘리는 것을 체험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고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된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갈 3:3). 스스로 만든 어떤 율법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영으로가 아니라 육체의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게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것, 부활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체험한다. 이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붙들리고 그분께 의무를 다하게 된다. 이것 또한 유기적인 연결에 달려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신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인 타고난 사람 안에서 살지 않는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서 비롯된, 하나님의 아들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롬 6:8, 10) 그리고 그 영을 통해(갈 5:16, 25)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이것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체험에서 누리는 것이다. 이 체험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사랑스러움과 소중함을 감상하는 것에 달려 있다. 주 예수님은 무한히 귀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늘 제대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 우리가 그분을 적절하게 제시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소중함이 주입될 것이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감상할 것이다. 이런 감상이 그들의 믿음이 될 것이고, 이 믿음이 그들 안에서 운행하여 그들을 주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이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있게 된다.(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0, 126 쪽, 메시지 9, 122-12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9-10*

### 9/3 수요일

#### 아침의 누림

#### 롬 6:6

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 요 15:5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빌 1:19-21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 창 1:26

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 창 2:22-23

22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23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 롬 5:5

5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지를 설명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분 안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성취된 사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분 안에서 죽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을 통해 이제 우리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이다(고전 15:45 하). 이 요점은 갈라디아서의 다음 장들에서 충분히 발전되는데,

거기에서 그 영은 바로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분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분이시라는 것이 제시되고 강조된다.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0, 130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분이시라고 말함으로써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을 끝맺는다. 이러한 말들을 쓸 때 바울은 주 예수님에 대한 감상으로 가득했다. ... 믿음은 이처럼 주 예수님을 감상하는 것에서 온다.

고린도후서 5 장 14 절과 15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을 감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은 ... 우리가 감상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주 예수님을 감상할 때, 우리는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이런 말을 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 이런 믿음은 유기적인 연결을 가져와, 그 안에서 우리와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육체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는 것이다.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 되셨다. 육체 되심을 통해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시어 율법을 이루신 다음 율법을 제쳐 두셨다.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준비가 되셨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되시는 것이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님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자 그분의 믿음으로 산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새사람 즉 새 ‘나’는 여전히 산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은 유기적인 연결을 산출하고, 이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우리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러한 유기적인 연결은 비교할 수 없다.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셔서 우리를 새사람, 새로운 ‘나’로 만드시는 것이다. 옛사람인 옛 ‘나’ 곧 하나님이 없던 ‘나’는 끝났지만, 새사람인 새 ‘나’ 곧 삼일 하나님이 있는 ‘나’는 여전히 산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에 의해 산다.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에 의해 산다. 이 믿음은 우리를 그분과의 하나 됨 안으로 이끄는 수단이다. 이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과 하나의 생명을 갖고 하나의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 때 그분께서 사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산다.

나는 하늘에 속한 이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요동시킬 수 없음을 간증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러한 이상에 기꺼이 나의 온 생명을 바치고자 한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새사람인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이제 내가 사는 생명은 믿음 안에서, 곧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이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삼일 하나님의 연합을 본다. 이 얼마나 놀라운가!(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0, 133-134, 136-13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2

## 9/4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갈 4:19

19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 빌 2:5

5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 갈 3:1, 13

1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습니까?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빌 2:6

6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엡 4:13-16**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

해산하는 진통'은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스러운 수고를 가리킨다. 이 비유에서 바울은 자신을 아이를 낳는 어머니에 비유했다. 바울은 처음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수고하여 그들을 거듭나게 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진통을 겪고 있었다(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3, 278 쪽)

**오늘의 위를 말씀**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해산하는 진통을 겪고 있었다. 살아 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초점이다. 바울이 전파한 것은 문자로 된 율법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으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에 출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두드러지게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갈 3:1)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13 절), 세상의 악한 종교 체계에서 우리를 건져 내셨다(1:4). 또한 우리 안에서 사시기 위해(갈 2:20)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1:1). 우리는 그분 안으로 침례 받아 그분과 동일시되었고, 그분을 입게 되었다. 즉 그분으로 옷 입게 되었다(갈 3:27).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갈 3:28), 그분께 속하게 되었다(29 절, 5:24).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 되셨고(갈 1:16), 이제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2:20), 우리 속에 그분의 형상을 이루실 것이다(4:19).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갈 3:24),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26 절).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상속받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누린다(갈 3:14). 더욱이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이다(갈 3:28). ... 우리가 그분을 살기위해서는, 그 분께서 우리 영 안에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갈 6:18).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의 믿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거듭나게 했을 때, 그리스도는 그들 안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들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시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 안으로 태어나셨다. 그다음에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갈 2:20). 결국에는 우리가 성숙할 때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갈라디아서 4 장 19 절은 바울의 부담이 기독교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을 말한다. 바울의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직 그들 안에서 자라지 못하셨고 그들 속에 그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셨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어머니처럼 다시 수고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성도들 안에 공급할 부담으로 글을 썼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세워지시고, 건축되시게 할 부담을 가졌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 되시고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제 우리는 또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본다.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데에는 종종 고난을 겪고 애를 쓰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은 평범한 기독교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여러분이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려는 부담을 지고자 한다면, 어떠한 수고와 고난이 요구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수고가 필요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나 사역 안에서 우리의 봉사의 목표는 다른 이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지 않고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담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에는 수고와 고난이 요구된다. 그것은 기도와 인내와 사랑을 요구한다. 우리의 체험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역은 전투이자 싸움이다. 하나님의 원수인 간교한 자는 좌절시키고 미혹시키는 일을 활동적으로

수행한다. ...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급하려는 부담을 갖는 것과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될 수 있도록 그들의 애정에 호소하는 법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한다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3, 278-28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2

## 9/5 금요일

### 아침의 누림

#### 고후 3:18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 롬 8:29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롬 1:1, 3-4

1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요 부름받은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습니다.  
3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4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골 1:27

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 골 3:4, 10-11

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10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 시 51:6

6 보십시오, 주님은 속부분의 진실성을 기뻐하시며 제 숨겨진 부분에 지혜를 알려 주십니다.

---

갈라디아서의 문맥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존재에 침투하시고 우리의 속부분들을 적시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의 내적 존재를 점유하실 때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자신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떨쳐 버려야 한다. ... 율법은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입지를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제쳐 두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적시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분께서 우리를 점유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적시실 것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30, 88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려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점유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안에서 조금의 여지도 갖지 말아야 한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입지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상과 결정과 사랑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게 해야 한다. ...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반드시 감소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셔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존재와 연합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 존재의 각 부분에서 ...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되셔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완전히 섞이실 때까지 반드시 우리를 적시시고 우리에게 침투하셔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와 매우 주관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믿는 이들 속에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바울의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그분의 형상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분은 우리의 조성이 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살아 있고 유기적인 일이다. ... 그분의 의도는 우리 온 존재,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분 자신으로 조성하시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전 존재는 그리스도의 요소로 조성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존재의 각 부분 안에 그분의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 혼의 각 부분을 조성하시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요소가 우리 안으로 조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분의 존재가 우리 존재가 되고, 그분의 조성이 우리의 조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요소가 우리 속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으로 조성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은 유기적인 변화와 형상을 이루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살아 있는 어떤 것,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요소가 우리 속으로 조성되고 일해 넣어진다.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와 깊이 관련되심을 계시한다. 이것은 단지 어떤 관념이나 학설이나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체험해야 할 신성한 사실이다.

갈라디아서 4 장 19 절에 나오는 '형상을 이룸(formed)'이라는 단어는 고린도후서 3 장 18 절에 나오는 '형상(image)'이라는 단어와 상응한다. ... 이 형상(image)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형상(form)과 동일하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다. 살아 계신 분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요소가 우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존재를 그분 자신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갖고 그분의 형상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과 동일한 노선에서 바울은 '변화되어'(고후 3:18)와 '같은 형상을 이루게'(롬 8:29)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결과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30, 89-9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3

## 9/6 토요일

### 아침의 누림

#### 롬 12:2

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 갈 3:26-28

26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28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갈 1:1

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과

#### 갈 6:15-18

15 이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뿐이기 때문입니다.

16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17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아멘.

---

우리의 생각은 우리 혼의 주도적인 부분이고, 생각이 새로워질 때 의지와 감정은 자동적으로 새로워진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 혼의 세 부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새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적시시는 것이다.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는 자아와 세상을 그리스도로 대치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워진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이 ...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 중 대부분이 아직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 않다. 때로 우리는 고상한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자아와 함께 세상을 표현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아에 의해 사랑하고, 웃고, 울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감정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많은 경우 그들의 말에는 자아와 세상의 요소가 가득하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적 존재 전체를 적시시어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자아와 세상을 그분 자신으로 대치하시기까지,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표현이 될 수 없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30, 91-92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신약에서 바울이 사용한 용법에 따르면, '모습'(빌 2:6)이라는 단어는 내적 존재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가리킨다. ...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 자아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하다면, 우리 외적인 모습도 자아와 세상일 것이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선택하는 것들은 자아와 세상을 표현할 것이다. ...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교로 점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외적인 모습에서 유대교를 표현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있는 자아와 세상을 그분 자신으로 대치하실 때까지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 어머니처럼 해산하는 진통을 겪어야 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혼의 각 부분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점유하시게 해야 한다. 그분께서 우리의 생각, 고려, 사랑, 증오, 행복, 슬픔, 의도를 점유하셔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을 더 많이 적시실 때 결국 그분은 우리 몸에 침투하시어 우리 온 존재에 그분 자신을 분배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년이 된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되며, 신성한 아들의 자격 안에서 성숙하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의 유업(엡 1:14, 벧전 1:4)이신 삼일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상속자들(갈 3:29)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숙되셔야 한다. 성령은 이 유업의 보증이시다(엡 1:13 하-14 상).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리스도를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임을 계시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침투되고 적셔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 온 존재를 차지하셔야 한다.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율법으로 빛나갔다. ...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씨이시자 우리의 누림을 위한 좋은 땅, 즉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이러한 복을 완전히 누리는 것, 즉 생명 주시는 영을 완전히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영으로 적셔지고 점유되고 완전히 점령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태어나셨다. 즉 우리 안에 계시되었다.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우리 속에 그분의 형상을 이루시어 성숙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 그리스도, 곧 우리 안으로 태어나셨고 이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우리가 성숙될 때 우리 속에 자신의 형상을 이루실 분에 대한 체험과 누림 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 그럴 때 우리는 성년이 된 아들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상속자들이 되고, 신성한 아들의 자격 안에서 성숙될 것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30, 92-9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30*

## 9/7 주일

### 아침의 누림

#### 벧후 1:1-11

- 1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 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 3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5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각별히 부지런하여 여러분의 믿음에다 미덕을, 미덕에다 지식을,

6 지식에다 자제를, 자제에다 인내를, 인내에다 경건을,

7 경건에다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다 신성한 사랑을 더하여 넘치게 공급하십시오.

8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또 계속해서 많아지면, 여러분을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으로 조성되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9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은 눈이 멀어, 멀리 보지 못하며, 자기의 옛날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은 사람입니다.

10 그러므로 형제님들, 더욱 부지런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면, 언제라도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1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